
- 러시아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방문 -
국 외 출 장 결 과 보 고 서

□ 개 요

- 출장기간 : 2019. 8. 16.(금) ~ 8. 21.(수)
(4박 6일)
- 출장국가 : 러시아(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 출장인원 : 36명(의장 17명, 공무원 19명)
- 출장주관 :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국가 혁신 · 지방 분권
경남시 · 군의회의장협의회

•• 순서 ••

I. 국외출장 개요	01
II. 출장자 현황	02
III. 출장 일정	04
IV. 방문국가 이해	05
V. 주요 현지 시찰	13
VI. 방문 결과 총평	33

- 경남 시·군의회의회장협의회 -

2019년 국외출장 결과보고

러시아의 관광·문화·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제도와 시책 등의 비교시찰을 통해 각 분야별 견문과 안목을 넓히고 다각적인 정책 제안으로 시·군정 발전 및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고자 함

I 출장개요

- 기 간 : 2019. 8. 16.(금) ~ 2. 21.(수) / 4박6일
- 국가(도시) : 러시아(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 출 장 인 원 : 36명(각 시·군의회의회장 및 수행원 등)
- 주 관 : 경남시·군의회의회장협의회
- 소 요 예 산 : 53,195,260원(경남시·군의회의회장협의회 여비)
- 주요 수행내용
 - 관광, 축제 사례 연구 및 문화유산 관리실태 연구
 - 지역특성 및 자연경관을 활용한 지역문화 활성화 방안 연구
 - 문화유산 보존과 관광개발 조화 사례 연구
 - 수출 및 무역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 투자 및 기술협력 실태파악

II 출장자 현황

□ 국외 출장 명단

※ 의장17, 직원19

연번	소 속	직 위	성 명(영문)	비고
1	창원시의회	의장	이 찬 호 (LEE CHANHO)	
2	진주시의회	의장	박 성 도 (PARK SUNGDO)	
3	통영시의회	의장	강 혜 원 (KANG HYEWON)	
4	사천시의회	의장	이 삼 수 (LEE SAM SOO)	
5	김해시의회	의장	김 형 수 (KIM HYOUNG SU)	
6	밀양시의회	의장	김 상 득 (KIM SANG DEUK)	
7	거제시의회	의장	옥 영 문 (OK YOUNGMUN)	
8	양산시의회	의장	서 진 부 (SEO JINBOO)	
9	의령군의회	의장	손 태 영 (SON TAE YEONG)	
10	함안군의회	의장	박 용 순 (PARK YOUNGSUN)	
11	창녕군의회	의장	박 상 재 (PAK SANGJAE)	
12	고성군의회	의장	박 용 삼 (PARK YONGSAM)	
13	남해군의회	의장	박 종 길 (PAK JONGGIL)	
14	하동군의회	의장	신 재 범 (SIN JAEBEOM)	
15	산청군의회	의장	이 만 규 (YI MANKYU)	
16	함양군의회	의장	황 태 진 (HOANG TEIJIN)	
17	거창군의회	의장	이 홍 희 (LEE HONGHEUI)	

연번	소 속	직 위	성 명(영문)	비고
18	창원시의회	의정담당	권 난 영 (KWON NAN YOUNG)	
19	창원시의회	주무관	옥 광 호 (OCK KWANGHO)	
20	창원시의회	주무관	강 성 엽 (KANG SEONGYOUNG)	
21	진주시의회	주무관	안 승 봉 (AN SEUNGBONG)	
22	통영시의회	주무관	이 일 중 (LEE ILJOONG)	
23	사천시의회	주무관	강 경 술 (KANG GYEONGSOOL)	
24	김해시의회	주무관	이 성 태 (LEE SEONGTAE)	
25	밀양시의회	주무관	김 성 규 (KIM SEONGKYU)	
26	거제시의회	의정담당	윤 병 삼 (YUN BYEONGSAM)	
27	양산시의회	주무관	최 진 식 (CHOI JIN-SIK)	
28	의령군의회	의사담당	전 흥 동 (JEON HONGDONG)	
29	함안군의회	의사담당	강 원 중 (KANG WONJUNG)	
30	창녕군의회	의사담당	이 상 용 (LEE SANG YONG)	
31	고성군의회	주무관	조 래 훈 (JO RAEHUN)	
32	남해군의회	의사담당	이 창 용 (LEE CHANGYUNG)	
33	하동군의회	의사담당	이 종 갑 (LEE JONG GAB)	
34	산청군의회	주무관	김 갑 생 (KIM GABSAENG)	
35	함양군의회	의사담당	임 흥 산 (LIM HEUNGSAN)	
36	거창군의회	의사담당	박 승 진 (PARK SEUNG JIN)	

I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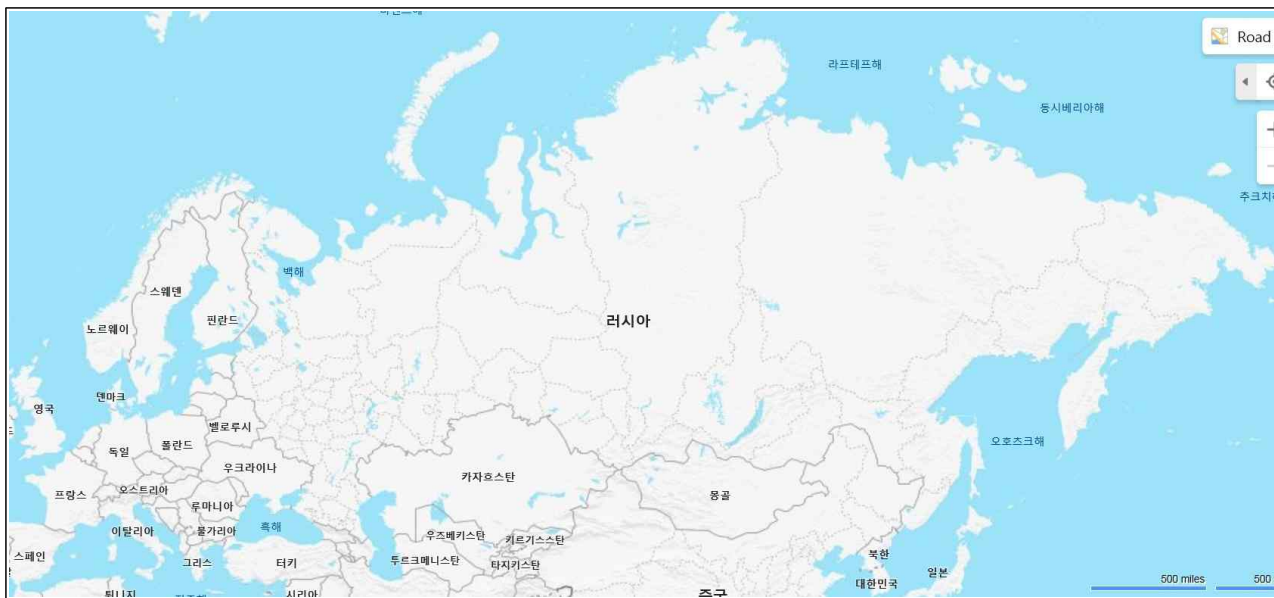
출장 일정

날짜	지역	교통편	시간	주요 일정
제1일 8/16 (금)	부산 인천 모스크바	KE1404 KE923 전용차	10:50 13:05 16:50 18:00	부산 출발 - 인천 공항 도착 (11:55) 인천 출발 [9시간45분 소요] 모스크바 도착 입국수속 및 수화물 수취 후 가이드 미팅 호텔로 이동하여 체크인 및 투숙
제2일 8/17 (토)	모스크바	전용차	07:00 08:00 12:00 13:00 18:00	조식 크레믈린 궁 대성당, 붉은광장, 레닌의묘 중식 지하철 역사 체험(전승기념관역-아르바트역 왕복)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전승기념비, 전승기념공원, 아르바트거리 석식 후 호텔 투숙
제3일 8/18 (일)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전용차 삽산 전용차	07:00 08:00 14:00 15:30 18:00	조식 기차역으로 이동하여 고속열차 삽산 탑승 상트페테르부르크 도착. 중식 에르미타주 박물관 석식 후 호텔 투숙
제4일 8/19 (월)	상트페테르부르크	전용차	07:00 08:00 09:30 13:00 14:00 18:00	조식 페테르부르크 출발하여 [약1시간20분 소요] 피터 대제 여름궁전 외 중식 바실리 섬의 등대, 피의 사원 예술광장, 데카브리스트 광장의 청동기마상 외 석식 후 호텔 투숙
제5일 8/20 (화)	상트페테르부르크	전용차 KE 930	07:00 09:00 12:00 13:00 18:00 23:00	호텔 조식 후 KOTRA 무역관 방문 중식 넵스키 대로 및 카잔성당 석식 후 공항으로 이동하여 출국 수속 상트페테르부르크 출발, 인천 향발[9시간45분 소요]
제6일 8/21 (수)	인천 부산	KE1405	13:50 17:15 18:20	인천 도착 인천 출발 김해 도착

IV 방문국가 이해

□ 러시아

1. 개요



러시아는 동쪽은 태평양과, 서쪽은 노르웨이, 핀란드, 폴란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벨라루스와, 남쪽은 조지아,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중화인민공화국, 몽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북쪽은 북극해와 접해 있다. 민족은 대다수가 동유럽 동슬라브계 민족이고 공용어는 러시아어이며 수도는 모스크바다. 유라시아 경제 공동체를 주도하는 국가이며 지역은 구 소련 내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과 거의 일치한다. 러시아는 동양과 서양의 사이의 문화를 보존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다. 러시아의 종교는 러시아 정교회가 거의 국교시화하며 그외 다수의 종교가 있다. 러시아는 아편전쟁 시기에 청나라가 패배하자 1858년부터 1915년까지 여러건의 불평등조약을 체결하고 청으로부터 총 150만km²의 영토를 넘겨받았고 이 중 일부 중에 4.7km² 면적을 2015년 11월 4일 중화인민공화국에 반환했으며 러시아면적은 4.7km²가 줄어든 17,098,237.3km²이며 2014년 3월 주민투표에 의한 크림 반도 병합으로 인해 약 36,000km²가 늘어 사실상 현재 면적은 17,134,237.3km²이다.

2. 설명

국토 면적이 17,134,237.3km²로 국가별 국토 면적 순위 1위를 자랑한다. 러시아의 면적은 유럽, 오세아니아, 남극 대륙 전체보다 넓은 나라이며 남아메리카 대륙보다는 조금 작다. 국토 최서단인 칼리닌그라드에서부터 최동단인 추코트카까지 총 11개의 시간대를 사용하며, 국토가 넓은 관계로 도로 수송보다 항공, 철도 수송에 의존한다. 국토가 좁고 황량하다는 인식이 있지만 실제로는 비옥한 땅도 많아서 국토 면적 중 경작지가 1,237,294 km²로 전 세계 4위이다. 아울러 천연자원에 있어서도 세계 최대 천연가스 매장국, 석유 매장량 8위, 석탄 매장량 2위를 자랑하는 등 경제의 많은 부분을 천연자

원 수출에 의존하고 있다. 인구도 꽤 많아서 세계 9위다.

세계에 현존하는 국가들 중 가장 넓은 영토를 보유한 나라답게 접경 국가도 매우 많다. 서쪽으로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와 접경하고 있다. 월경지인 칼리닌그라드까지 포함하면 폴란드, 리투아니아와도 접경하고 있으니 국토 서부의 접경국만 8개국이다. 그뿐 아니라 남쪽으로도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몽골, 중국, 북한까지 6개국과 접경하니 총 14개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다. 또 남쪽으로 사할린 섬에서 오호츠크 해를 사이에 두고 일본과 마주보며 동쪽으로 베링 해를 사이에 두고 미국과 마주보고 있다.

1945년 UN 창설 당시 원년 회원국이며, 1991년에 소비에트 연방을 승계[17]한 이후 현재 UN 상임이사국으로 있다. G20의 참가국이다. 기존 G8의 라스트 멤버이기도 했다. 또한 중국,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함께 상하이협력기구의 회원국이기도 하다. 독립국가연합의 창설국 중 하나이며, 2012년 1월에는 유라시아 연합을 창설했다. 브릭스 (BRICS)에서 R이 러시아다.

3. 상징

가. 국호

국명의 유래는 러시아인의 근간인 동슬라브족, 혹은 그들이 사는 땅을 가리키는 단어인 루스(Русь). 지금의 국명인 러시아(Россия)는 중세 그리스어로 루스를 가리키는 명칭인 로시아(Ρωσσία)에서 유래했다.

러시아라는 명칭은 전통적으로 국명이라기보다는 지역명이었으며 루스와 구별되는 이름은 아니었다. 이는 벨라루스를 일컫는 다른 이름인 백러시아, 우크라이나 남부를 일컫는 소러시아, 벨라루스 서부 지역을 가리키는 흑러시아 등의 이름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동슬라브족 국가 중 하나였던 모스크바 대공국이 15세기 이후 동슬라브족이 중심이 된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고 지역을 거의 통일해 '루스' 혹은 '러시아' 지역의 대표 국가가 됨으로써 자신들의 지배의 정통성을 주장하기 위해 국호를 루스 차르국(Царство Русское)으로 바꿨고, 이후 표트르 대제가 서구화의 일환으로 그리스어 어원의 이름인 '로시아'를 채용해 러시아 제국(Российская Империя)을 선포했다. 이후 '러시아'가 지금까지 국명으로 이어졌다.

한국 표준어에서는 영어식 표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러시아라는 표기를 쓴다. 2005년 제정된 러시아어 외래어 표기법에 따르면 로시야로 쓰는 것이 맞겠지만 이미 정착된 표기라 뒤집을 수 없어서인지, 지금도 표준 표기는 러시아이다. 북한 문화어로는 로씨야를 쓴다.

러시아의 한자 음차로는 노서아(露西亞)와 아라사(俄羅斯)가 알려져 있다. 전자는 일본어 한자 음차, 후자는 중국어 한자 음차에서 비롯된 것이다. 노서아란 음차는 '러시아'를 옮긴 것이고, '아라사'란 음차는 몽골어로 러시아를 뜻하는 'Орос'에서 가져온 것이다.



이렇게 대부분의 언어에서는 루스에서 따온 말을 쓰지만 소수 언어에서는 다른 유래의 단어를 쓰기

도 한다. 예를 들면 핀란드어에서는 러시아를 Venäjä라고 하는데 이는 게르만인들이 슬라브인을 부르던 말인 Wend(벤드)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정작 루스에서 따온 말인 Ruotsi는 스웨덴을 가리킨다.

한국어에서 한 글자로 줄여쓸 땐 '러'를 쓰거나, 노서아에서 따온 '노'(露)라고 한다.[20] 아라사에서 따온 俄(아)도 있지만, 아관파천 한 단어를 제외하고는 사장된 표현이다. 1990년대 후반까지 신문에서 한자를 자주 병용했을 때만 해도 신문기사 표제에서는 이 나라의 약칭을 '露'라고 적었고 1991년까지는 露라고 적을 일이 없었다 2018년 기준으로 아직도 露로 약칭하는 기사도 찾아볼 수 있지만, 요즘에는 “러“라고 쓰는 경우도 많다.

공식 국호는 '러시아 연방 공화국'이 아니라 '러시아 연방'이다. 러시아에서는 구 소련 이래로 공화국이라는 용어를 독립 국가의 한 형태로 사용하기보다 정치적 연합체(주로 연방 국가)를 구성하는 단위로서 사용하였다. 소련부터가 소비에트라는 사회주의 체제를 수용한 공화국들의 연합체(그래서 국호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였지 스스로를 공화국이라고 지칭하지 않았다. 그리고 소련은 15개의 공화국으로 구성되었고, 이들 중 일부는 필요에 따라 다시 내부에 공화국을 설치하는 식이었다. 그래서 구 소련이 해체되고 그것을 구성하던 공화국이었던 러시아가 독립국이 되자, 독립국이면서 스스로를 공화국으로 부르는 건 기존의 관행과 충돌하기에 '러시아 연방'이 공식 국호로 채택되었다. 어차피 지금 러시아 연방 내에도 공화국들이 연방을 구성하는 단위의 한 형태로 유지되고 있어서 국호에서 뭔가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

나. 국기

	
국 기	국 장

러시아 연방의 국기는 하양, 파랑, 빨강의 삼색기이다. 위에서부터 하얀색, 파란색, 빨간색 등의 가로형 3색순이다. 하얀색은 고귀함, 순결함, 진실, 자유, 독립을 상징하고 파란색은 정직함, 충성심, 헌신, 순수함을 상징하며 빨간색은 용기, 지혜, 슬기로움, 사랑, 국가와 자신에 대한 희생정신을 나타낸다. 전통적으로는 천상세계, 푸른 하늘, 속세를 가리키는 해석도 있으며,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러시아 동슬라브 3개국의 단합을 가리키는 의미도 있다고 한다.

원래는 국기가 아닌 상선(商船)에서만 사용하였던 전용깃발이었다. 그러다가 러시아 황제 포트르 1세가

이 깃발을 국기로 제정함에 따라 공식적으로 국기로 승격되었으나 1917년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고 낮과 망치가 그려진 소련 깃발로 대체되었다. 이후 소련이 해체된 1991년, 러시아 연방의 출범과 함께 국기로 재 지정되었다.

이 국기를 썼던 러시아 제국이 슬라브족의 나라 중 가장 강력하고 범슬라브주의의 강력한 후원자였던 만큼 러시아 국기의 파란색, 흰색, 빨간색 조합이 범슬라브주의의 상징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구 유고슬라비아 등의 국기가 러시아와 유사한 것은 이러한 이유. 이런 나라들은 국기에 자신들의 국장을 반영해 러시아 국기와 구분한다.

4. 기후

한국에서 러시아 이미지는 시베리아로 대표되는 추운 나라로 알려져 있는데 대부분 지역이 겨울에 추운 건 사실이지만 세계에서 가장 큰 영토를 가진 나라답게 남부 쪽은 생각만큼 춥지 않은 지역도 많이 있다. 예를 들어 2014 소치 동계올림픽이 개최되었던 흑해 연안 소치의 2월 평균기온은 6℃로 아열대기후에 속하며 제주시의 6.4℃와 비슷하다. 내륙의 모스크바 역시 서울보다는 춥지만 강원도 대관령, 북한 신의주와 비슷한 정도(1~2월 평균기온 -7.5℃)의 기온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까지는 아니다. 북아시아(시베리아) 지역도 대부분의 인구가 몰려 사는 시베리아 횡단철도 연선 지역은 그렇게까지 춥지는 않다. 러시아 전체적으로 겨울이 조금 길기는 하지만 1년 내내 추운 것도 아니고 여름에는 충분히 덥다. 2010년 7월 칼미키아의 우타에서는 45.4℃라는 러시아 역사상 최고 기온이 기록되었다. 오이마콘에서 기록된 최저기온은 71.2℃.

물론 북극권에 가까운 시베리아 북쪽으로 올라가거나 동쪽으로 갈수록 극단적으로 추운 기후를 자랑한다. 야쿠츠크의 1월 평균 기온은 -40℃, 베르호얀스크는 -45.9℃, 오이마콘은 -51.3℃다.

5. 인구

2017년 약 1억 4200만 명이다.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 후 출생률과 평균 수명이 줄어들어 1993년부터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고 2008년까지 15년 동안 러시아의 인구는 660만 명이 감소했다. 2009년부터 러시아의 인구는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2018년 인구 통계 조사에서의 현재 러시아의 인구는 약 1억 4395만 명이다.

2018년을 기준으로 러시아 인구는 1억 4395만명으로 세계에서 9위에 해당하는 인구수를 가지고 있다. 이는 전세계 인구의 1.89%를 차지하는 수치이며 전체 인구의 72.8%(1억 474만명)이 도시에 거주중이고 나머지 27.2%의 인구가 비도시 지역에서 살고 있다. 인구밀도는 km² 당 9명. 러시아인들의 중위연령은 38.9세입니다. 성비는 여자가 남자보다 천만명 이상 많은 여초로 35세를 기점으로 그 밑은 남초이며, 이 이상부터가 여초다. 러시아의 인구 변화율을 근 10년간 0.1퍼센트를 밀돌아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몇몇 자료에서는 러시아의 현 인구를 1억 4688만명이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내전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 100만명 이상의 난민이 러시아로 유입되었으며, 중동에서도 상당수의 난민들이 러시아로 유입되었다.

전체 인구의 약 80%를 러시아인이 차지하고 있고, 약 160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100개 이상의, 기타 종교 등의 신도도 적지 않다. 러시아인의 성명은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성과 부칭 이름이다. 순서는 이름+부칭+성의 순서이다.

6. 언어

공용어이자 국내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러시아어다. 하지만 전부가 러시아어를 모어로 하는 것은 아니라서, 러시아 인구의 약 92%인 1억 3천만명만이 러시아어를 모어로 삼는다. 이는 러시아가 다민족 국가인 특성상 러시아인을 제외하고도 소수민족이 수없이 많기 때문이다. 이 소수 민족들이 사용하는 언어의 어족도 인도유럽어족, 북서캅카스어족, 우랄어족, 고아시아어족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또한 러시아가 연방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연방을 구성하는 각 주체(공화국, 민족 자치구 등)는 러시아어 이외에도 따로 공용어를 지정하여 사용한다. 타타르 공화국의 타타르어, 사하 공화국의 야쿠트어가 대표적인 예.

하지만 러시아어의 세가 워낙 강력하다보니 지금은 소수민족 상당수가 자신의 민족어를 점차 잊어버려서 2009년 유네스코는 러시아 내 언어 136개가 사멸 위기에 처해있다고 밝혔다. 그러다보니 러시아내 소수민족들의 언어들은 러시아 정부의 특별 기금으로 보호를 하는 것을 마련하고 있다.

관련 자격증으로는 러시아 교육부가 주관하는 공인 시험인 토르플(ТРКИ, Тестирование по русскому языку как иностранному)이 있다. 토르플은 한국슬라브문화원 산하 토르플센터, 계명대학교 등에서 응시가 가능하다. 그외 기타 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으로는 한국외국어대학교의 외국어능력시험인 FLEX,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주관 언어능력시험 SNULT, OPIc 러시아어가 있다.

7. 역사

기본적으로는 슬라브 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역사이다. 하지만 동유럽의 원주민들인 슬라브인들 러시아인과 우크라이나인들은 고대부터 중앙아시아에서 온 투르크 민족들에 정복당해 튀르크 문화에 많은 영향을 받은 것도 사실이다. 동유럽의 슬라브 원주민들은 5세기부터 투르크 민족 국가인 사바르 카간국의 동유럽 정벌에 의해 튀르크의 지배하에 있었고 그 후에는 러시아인 그리고 우크라이나인들이 아바르 카간국이 정복되었다. 나중에는 러시아인 초기 국가인 루시 카간국과 우크라이나인들에 막대한 영향을 준 하자르 카간국에 정복되어 있었다. 러시아인과 우크라이나인, 벨라루스인과 남서 슬라브 민족들은 중앙아시아의 동유럽 정복을 받아들이고 그 휘하에서 활동하였다. 3세기부터 10세기까지 이르는 중앙아시아 투르크 민족의 러시아 민족 지배에 의한 투르크화의 영향력으로 슬라브 문화는 서유럽 문화와는 조금은 이질적인 존재로 취급됐었다.

러시아와 벨라루스·우크라이나의 원형인 중세의 루스는, 862년에 연초연대기 기록으로는 노르만인 류리크가 노브고로드의 공이 되어,(이 부분에서는 러시아 학자들의 의견은 다르며 슬라브인으로 본다)그 일족이 동쪽 슬라브인의 거주지역에 합류되어 가는 과정에서 형성되었다고 연대기에 기록된다. 당초의 키예프 루시의 중심은, 현재는 우크라이나의 수도인 키예프며, 현재의 러시아의 중심인 북동 루스는 오히려 변경에 위치해 있었고, 모스크바도 아직 역사에는 등장하지 않았다.

지배층을 포함해서 슬라브화된 키예프 공국은 9세기에 동로마 제국으로부터 동방 정교회와 비잔틴 문화를 수용해서, 독특한 문화가 생겼고 동유럽의 동슬라브족은 10세기에 키예프를 중심으로 한 키예프 공국으로 통일되었다. 그러나 13세기 초에 몽골의 지배에 있었다.

키예프 루시의 변방에 지나지 않았던 모스크바 대공국(1340년~1547년)은 몽골 지배 하에서 루스가 한에 납부하는 세금을 정리하는 역할을 맡았고, 나중에 점차 실력을 길러서 15세기에 킵차크 한국의 지배를 실질적으로 벗어나 루스의 통일을 추진했다. 모스크바 대공국은 이반 3세(재위 1462년~1505년) 때 차르를 자칭했다. 17세기 초에는 로마노프 왕가의 러시아 제국(1613년~1917년)이 수립되었다. 표트르 1세(재위 1682년~1725년) 때 국가 체제를 정비하고, 17세기에는 태평양 연안까지의 시베리아를 정복하고, 19세기엔 중앙아시아 및 카프카스를 합병하여 유럽·아시아에 걸친 광대한 영토를 갖는 대국가가 되어 유럽 열강의 일원이 되었다. 또, 해외 진출을 위해서 부동항을 얻기 위해서 남하정책을 추진하여 터키 등 주변국들과 전쟁을 일으켰고, 영국과의 팽팽한 대립이 더 심해졌다. 극동에서는 연해주를 청으로부터 획득하면서 블라디보스토크를 세우고, 시베리아 철도를 건설했다. 한편 1867년에 러시아는 알래스카를 미국에게 팔았다. 극동에선 일본과의 전쟁(러일 전쟁, 1904년~1905년)이 일어났다.

러일 전쟁의 패배로 국내가 흔들린 후, 제1차 세계 대전 중인 1917년 3월에 일어난 러시아 혁명(2월 혁명)으로 러시아 제국은 무너졌다. 1917년 11월, 블라디미르 레닌이 지도하는 이른바 10월 혁명이 성공하자 일체 권력은 노동자·인민·농민의 대표자로서 조직되는 ‘소비에트(평의회라는 뜻)’에 있음이 선언되고, 소비에트 정부가 출현했다. 그후 한동안 왕당파인 백색군과의 내전에서 혁명파인 적색군이 승리함으로써 블라디미르 레닌이 지도하는 소비에트 연방(소련)이 건국되었다. 이어 러시아 제국의 통치 밑에 있었던 여러 민족은 혁명을 계기로 독립했으나, 1922년 12월에는 그 사이 독립하여 성장해 온 4대 사회주의공화국 즉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및 자카프카스 등이 연방조약에 조인함으로써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소련)이 성립했다. 제정 러시아 영토를 기반으로 한 소련은, 중앙아시아 방면의 여러 공화국이 소련방에 편입하고, 1940년에는 몰다비아 공화국 및 발트해 연안의 3개공화국이 편입하여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에는 15개의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구성되었다.

제2차 세계 대전 후에 소련은 초강대국으로 성장하여 미국과 냉전을 펼쳤지만 1970년대부터 소련의 경제는 침체되었다. 1985년 3월 공산당 서기장에 취임한 미하일 고르바초프는 대외적으로 '신사고'노선에 입각한 과감한 외교에 나서 냉전을 종결시키는 한편, 1986년 2월 제27차 당대회에서 페레스트로이카(개혁) 및 글라스노스트(개방) 노선을 선언하는 등 공산주의 체제의 정치적 부정부패척결과 경제회생을 위한 개혁을 시도하였다. 그런데, 각지에서 민족주의가 분출하게 되었다. 1989년 10월 브레즈네프 독트린(제한주권론)을 공식폐기했고, 1990년 2월 대통령제를 도입하여 고르바초프가 소련의 초대 대통령이 되었다.

1991년 7월 당중앙위는 스탈린주의를 공식적으로 포기 선언하였다. 그해 여름에 공산당의 고르바초프 축출시도가 실패하면서 1991년 12월 25일 고르바초프가 소련 대통령직에서 물러났고 소련은 붕괴되었다. 소련의 붕괴로 독립한 국가들은 독립 국가 연합을 탄생시켰다.[3] 러시아는 소련이 가지고 있던 국제적인 권리(상임이사국 등)와 국제법 상의 관계를 기본적으로 승계했다. 국명은 1992년 5월, 러시아 연방 조약에 의해서 현재의 러시아 연방의 국명이 최종 확정되었다. 러시아 연방의 국명 변경은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 사임 당일인 1991년 12월 25일, 당시의 러시아 최고 회의 결의에 의했다.

엘친 대통령은 1991년 11월 러시아 최고회의가 부여한 비상대권을 1년간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시장 경제 정책을 추구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경제가 악화됐다. 이를 계기로 엘친은 보수파의 온상인 최고회의와 인민대표회의의 심한 견제를 받기 시작했다. 이후 엘친은 사사건건 인민대표회의와 최고회의의 견제를 받자 3권 분립을 명확히 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1993년 10월 의회를 해산했다. 이 과정에서 자체무장력을 갖추고 있던 의회보수파는 무력저항을 했으나 엘친은 군대를 동원해 진압했다. 동 12월에 실시된 의회 재선거에서는 보수파의 의석이 크게 줄어 엘친은 보수파를 제압했으나 많은 의석 확보에는 실패하여 블라디미르 지리노프스키가 이끄는 극우파와 공산당이 득세했다. 엘친 대통령과 인민대표회의간의 개혁정책 갈등은 1994년 10월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58.5%의 찬성으로 국민들로부터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일당체제인 공산당 체제가 무너진 후 많은 정당들이 생겨났는데, 신헌법에 따라 1993년 12월 실시된 총선결과 러시아 하원 국가 두마선거에서는 친엘친계 예고르가이다르의 러시아의 선택당이 전체 450석 중 96석을 차지하여 최대 정당이 됐다. 그리고 극우파인 블라디미르 지리노프스키의 자유민주당이 70석, 공산당이 65석, 농민당 47석, 야블린스키연합 33석, 러시아 여성 25석, 러시아 민주당 21석, 시민동맹 18석, 민주개혁운동 8석, 존엄과 자선 3석, 러시아의 미래 1석, 기타 무소속이 30석을 차지했다. 러시아 선택당은 1994년 6월 당명을 러시아 선택민주당으로 바꿨다. 1996년 7월 3일 엘친은 53.8%를 득표해 승리하였다. 엘친대통령은 대선 후 건강악화로 1996년 11월 5일 심장수술을 받고 체르노미르딘 총리에게 전권을 일시 이양하였다. 그는 12월 23일 크렘린궁에 복귀해 리펑 중국 총리, 헬무트 콜 독일 총리 등과 회담하였는데 한편 러시아 하원은 1997년 1월 말 엘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시도했으나 부결처리 되었다. 1997년 1월 교사 50만명이 체불 임금지급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고 3월 27일 러시아 전역에서 노동자 총파업에 200만명이 참가했다.

정보국장인 블라디미르 푸틴이 1999년 러시아 대통령 보리스 엘친에 의해 총리로 지명되었으며 그해 12월 31일 엘친의 하야 선언으로 대통령권한 대행이 되었으며 이듬해 3월 26일 열린 대선에서 러시아연방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푸틴은 강력한 러시아를 주창하며 혼란을 수습하고 러시아의 재건을 이끌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서방식을 구사하나, 정치적, 사회적, 군사적으로 구 소련의 방식을 일부 운용하여 서방여론에겐 좋지 않은 이미지를 보이고 있다. 재선이후 3선 불가에 따라, 도전하지 않고 2008년 3월 선거에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가 러시아의 새 대통령으로 선출되도록 도왔다. 푸틴 대통령은 메드베데프 정부에서 총리직을 맡아 막후에서 영향력을 행사 했다. 2011년 러시아는 영토분쟁으로 조지아와 전쟁을 벌인 뒤, 남오세티야-압하지야에 군대를 주둔하고 그루지아와는 외교관계를 단절했으며, 압하스 공화국과 남오세티야의 독립을 승인했다. 그리고 집단 안보 조약 기구에 가입한 가입국들은 러시아의 입장을 지지했다. 9월 17일에는 압하지야와 남오세티야와의 우호조약을 체결했다.

푸틴총리를 위해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대선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노보스티가 보도했다. 하지만 푸틴의 대변인은 이 같은 사실을 부인했다. 2008년 11월 11일 메드베데프는 대통령 임기를 4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11월 14일에 러시아 하원은 대통령 임기 연장을 통과시켰다. 러시아도 경기침체에 빠져들면서 반푸틴 시위가 일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009년 3월 15일에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푸틴을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러시아는 체첸내전이 끝난 직후부터

10년 동안 체첸 공화국에 내렸던 안보통치체제를 해제했다. 러시아는 인구가 감소하면서 출산을 장려하는 광고까지 나왔다.

2009년 8월 12일, 잉구슈 자치 공화국의 루슬란 아메르하노프 잉구슈 건설부 장관이 집무실에서 총격으로 숨졌다고 러시아 내무부가 밝혔다. 내무부 발표에 따르면 복면을 한 괴한들은 어제 아침 경비를 뚫고 장관 집무실에 있던 아메르하노프 장관에게 총격을 가하고 도망쳤다고 하였다. 잉구셰티야 지역은 이전에도 독립을 요구하는 이슬람 반군의 테러가 잇따랐으며 체첸 자치 공화국과 함께 캅카스의 화약고로도 불린다. 2010년 12월 6일에 모스크바에서 축구팬이 카프카스출신의 청년이 쓴 총에 의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민족주의자들과 소수 민족 청년 사이에서의 민족갈등이 벌어졌다. 이 사건으로 인해 1천여명이 연행되기도 했다. 그리고 메드베데프는 2011년 1월 5일에 연설에서 러시아는 다민족 국가이며 민족갈등을 야기하는 행위는 위험한 행동이고 폭력적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처벌시킨다고 말했다. 2011년 1월 24일에 도모데도보 국제공항에서 테러가 발생되면서 최소 35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013년 겨울에 시작된 우크라이나 위기를 계기로 우크라이나의 빅토르 야누코비치 정권이 붕괴하자, 2014년 3월 18일 주민 투표를 통해 우크라이나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크림 공화국을 합병하였다. 합병 조약 이후에 러시아는 크림 반도에 별도의 연방관구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국제 사회는 러시아의 크림 반도 합병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¹⁾

1) 방문국가 이해 부분 출처 : 위키백과, 나무위키

□ 모스크바 국립대학 외 크레믈린 궁, 붉은광장 등

1. 모스크바 국립대학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에 있는 종합국립대학교로서 정식 명칭은 'M.V.로모노소프 모스크바국립대학교'이고, 약칭은 'MSU'이다. 줄여서 '로모노소프대학교'라고도 한다. 1755년 1월 25일 엘리자베타 페트로브나(Elizaveta Petrovna) 여제가 시인·과학자·언어학자·계몽사상가인 미하일 로모노소프의 대학 설립 제안을 받아들여 칙령을 내렸고 같은 해 4월 26일 개교하였다.

1953년 스탈린 양식의 새캠퍼스가 완성되면서 지금 장소로 이전하였다. 건물은 높이가 240m이고 정면의 길이가 450m나 되어 스탈린 양식의 건축물 가운데 가장 크다.

19세기에는 러시아 문화의 중심부를 이루어 세계적으로 유명한 많은 학자가 활동하였으며, 출신계급을 망라하는 교육·연구의 전통을 세웠다. 1917년 러시아혁명 이후 크게 발전하였다.

캠퍼스는 모호바야 거리에 있으며 면적 100만㎡의 레닌 힐스(Lenin Hills)를 비롯해 유서 깊은 건물들이 많다. 부설시설로는 도서관, 4개 박물관, 식물원, 핵물리연구소·역학연구소·천문연구소를 비롯한 10여 개의 연구소, 미디어센터·국제교육센터·국제레이저센터·사회학연구센터를 비롯한 20여 개의 연구센터, 과학파크, 출판국, 레크리에이션 센터, 영재기숙학교 등이 있다.

졸업생 또는 교수로 노벨상을 수상한 대표적인 인물은 러시아의 정치가로서 구소련 공산당 서기장과 최초의 대통령을 지내고 1990년 평화상을 수상한 미하일 고르바초프, 니콜라이 세묘노프(1956, 화학), 표트르 카피차(1978, 물리), 알렉세이 아브리코소프(2003, 물리)이다. 또한 작가 안톤 체호프, 수학자 안드레이 콜모고로프, 러시아 출신의 프랑스 화가 바실리 칸딘스키, 물리학자 안드레이 사하로프 등이 졸업했다.

모스크바 국립대학의 정문에 엄청난 규모의 위용을 자랑하는 스탈린양식의 건물은 그 자체로도 관광객을 끌어 모으고 있고, 내용에서도 과학 및 인문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만들어냈다.

2010년 기준 기계학·수학학부, 물리학부, 화학부, 생물학부, 토양과학부, 지리학부, 지학부, 재료공학부, 역사학부, 철학부, 언어학부, 법학부, 경제학부, 언론학부, 아시아·아프리카학부 등의 29개 학부, 350개 학과, 야간부·통신교육부 및 대학원에서 57개의 학부과정, 168개의 대학원과정을 제공한다. 3천여명은 97개의 세계각국에서 온 유학생과 연구원들이고 매년 158개국의 천오백여명의 외국학생들이 어학연수 등의 목적으로 공부하고 있다. 학교도서관에는 8백만여권의 전문서적과 학위논문이 보관되어 있으며 모스크바 국립대학 산하 연구소는 450여개나 있고 대학내 박물관도 3개를 운영하고 있다. 모스크바 국립대학은 명실공히 러시아 최고의 대학으로서 러시아의 선진화를 위한 핵심두뇌들이 양성되고 있는 상아탑의 산실이다

현재 경남에도 여러 대학교가 각 지역별로 분포되어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모스크바 국립대학교와 같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중앙정부에서도 국가 산학협력위원회가 설립이 되었고, 산업교육 및 산학연 협력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해 진행하고 있다. 기본계획은 인재양성, 기술이전/사업화, 창업, 산학협력 인프라 구축 등 4대 과제가 있다. 이에 발맞춰 지방의회와 지방정부도 4차산업혁명을 지역실정에 맞게 주도하고 성장을 시켜 각 지역 실정에 맞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한다면, 각 대학이 괄목할만한 성

과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2. 러시아 건축예술의 진수, 크렘린 궁전과 붉은 광장

러시아의 심장부를 대표하는 크렘린궁의 어원은 원래 방어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성벽, 요새를 뜻한다고 한다. 처음에는 군사적 요새였지만, 러시아의 여러 대공국의 수도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발전했다. 대공국의 수도가 되면서 정치, 경제적으로 보다 유리하게 된 모스크바는 나무 요새를 벽돌로 바꾸기 시작했고 그 중심에는 이반 3세가 있었다.

이반3세는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고 러시아를 통일시켰으며 몽골족을 몰아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이반 4세때부터 황제라는 칭호를 사용하게 되었다. 이반 3세는 보다 튼튼한 성벽을 짓고 크렘린을 완성했다. 크렘린이 완성된 시기는 1495년으로 전체 둘레가 1.6km에 달했다고 한다. 성벽의 높이는 5~19m이고 두께는 3.3~6m로 건설되었다. 주위 건축물들로 인해 러시아의 수도 내에서 권력의 핵심을 나타내며 그 웅장한 모습과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성벽의 모습은 관광객들을 압도하고 있다.

주요 건물들은 크렘린 중앙에 있는 소보르나야 광장 주변에 모여 있는데, 우스펜스키 대성당을 중심으로 아르한겔스키 성당, 블라고베시첸스키 성당 등이 있다.

크렘린을 상징하는 성당으로는 황금색 지붕이 인상적인 우스펜스키(성모승천) 대성당을 꼽을 수 있다. 우스펜스키 대성당은 황제의 대관식을 비롯한 국가의 주요 행사장으로 사용되었고, 러시아 정교회를 이끄는 핵심적인 장소였다. 훗날 러시아의 수도를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옮긴 뒤에도 황제의 대관식만큼은 이곳에서 거행되었다. 우스펜스키 대성당은 소박한 걸모습과는 다르게 실내는 매우 아름다운 성화로 꾸며져 있다. 성당 안에는 성모 마리아와 예수, 12사도 등 성경 내용을 담은 성화로 가득하다.

그 밖에도 금으로 도금된 9개의 지붕과 아름다운 성화로 유명한 블라고베시첸스키 성당과 역대 대공과 황제의 시신이 잠들어 있는 아르한겔스키 성당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방문객의 발걸음을 붙잡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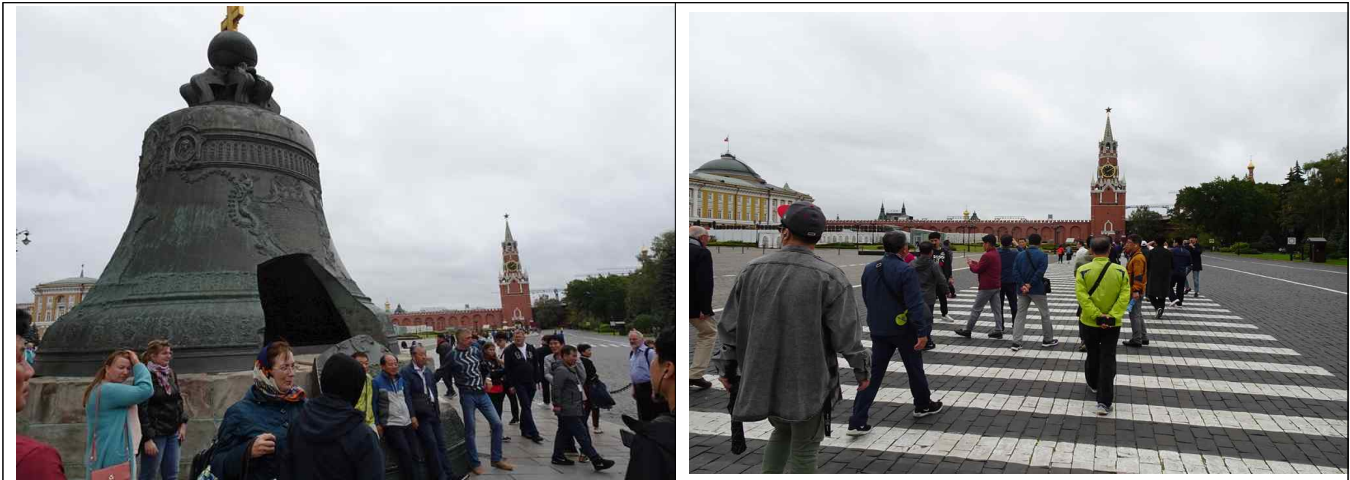
크렘린에 세워진 궁전으로는 소보르나야 광장 근처의 그라노비타야 궁전과 황제와 여제의 저택으로 사용했던 첼무노이 궁전, 총주교가 사용했던 파트리알시 궁전이 있습니다. 그중 그라노비타야 궁전과 첼무노이 궁전을 함께 대 크렘린 궁전이라 부르고 있다.

크렘린 궁전의 꽃은 역사의 흔적과 흥미로운 이야기가 숨어 있는 그라노비타야 궁전이다. 우스펜스키 대성당과 마주 보고 있는 그라노비타야 궁전은 이반 대제에 의하여 1491년에 건설된 궁전이다. 진한 상아색과 흰색으로 이루어진 평범해 보이는 겉모습과는 다르게 궁전의 실내는 무척 화려하다. 화려한 장식과 벽화가 그려진 육중한 기둥 하나가 전체를 떠받치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고, 알현의 방은 온통 벽화로 둘러싸여 있는데 특히 바닥이 아름답다. 바닥 전체가 황금으로 덮여 있고 프레스코 그림이 그 위를 장식하고 있어 사람들은 알현의 방을황금의 방이라고 부른다.

1636년에 건설된 첼무노이 궁전은 황제와 여제가 머물던 궁전이다. 돌로 지은 석조 건물이지만 전통적인 러시아 목조 양식으로 지어졌다. 황금으로 도금한 방을 비롯하여 화려한 조각이 새겨진 천장 등 궁전 전체가 호화롭게 꾸며져 있다.

파트리알시 궁전은 현재 공예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곳에는 17세기의 생활상을 살펴볼 수 있는 다양한 조각과 생활 용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이 밖에도 크렘린 안에는 흥미로운 건축물과 유물이 즐비하다. 모스크바에서 가장 높은 탑인 이반 대제의 종루, 현재 무기고 박물관으로 활용되고 있는 과거의 무기고, 그리고 단 한 차례도 사용하지 못하고 기념사진 촬영장소로 쓰이고 있는 200t이나 되는 종과, 역시 한 번도 쏘아 보지 못한 대포를 비롯한 흥미로운 유적지와 유물이 많다. 크렘린은 전체가 거대한 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다.



<크레믈린 궁 안의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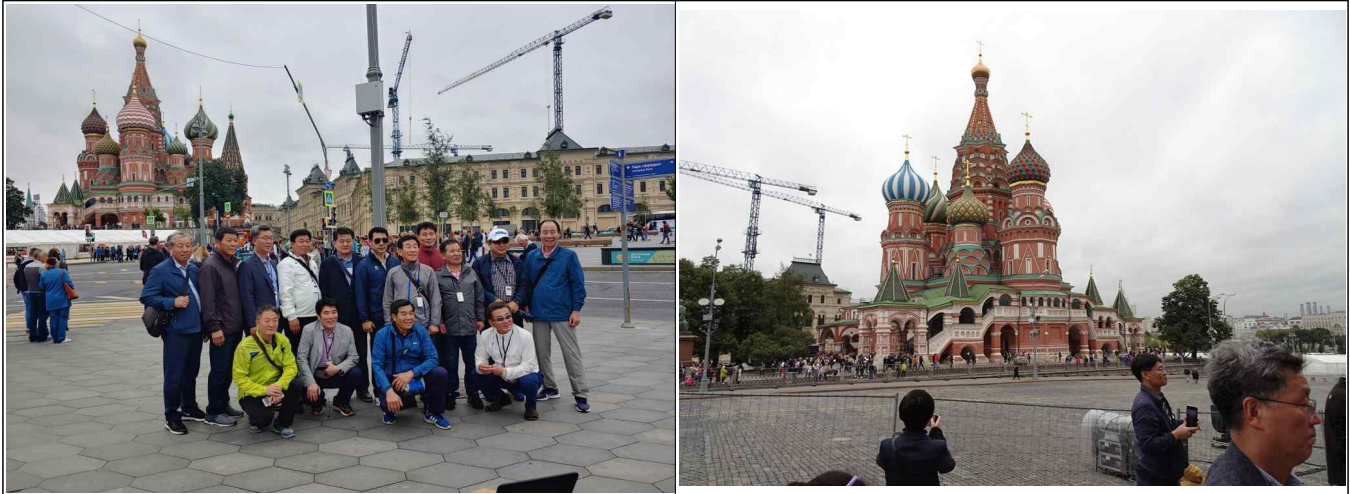
크레믈린 궁전 북동쪽으로는 길이 약 700m, 폭 약 100m의 붉은광장이 펼쳐져 있다. 15세기 말부터 존재했으며, 처음에는 교역장소로 활용되어 시장이라고 불렀다가, 16세기 화재로 점포들이 불타버린 후 화재광장이라고 불렸다. 17세기에 들어와 붉은광장으로 불리게 되었다. 러시아어 ‘크나스나야’는 원래 ‘아름답다’, ‘붉다’는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으므로, 애초 ‘붉은광장’은 ‘아름다운 광장’이라는 의미였다.

붉은광장은 처음에 단순한 상업지대였지만 차츰 문화생활 중심지로 바뀌면서 연극 공연장 등으로 활용되기도 하였으며, 현재의 모습은 19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나타나게 되었다고 한다.

붉은 광장에 있는 레닌묘, 성 바실리성당, 국영백화점인 굼백화점, 국립역사 박물관, 카잔성당 등이 위치해 있다.

성 바실리성당은 모스크바 강쪽으로 화려하고 웅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사원은 러시아 황제 이반 4세가 전승을 기념하여 봉헌한 성당이라고 한다. 그 후 증축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숭배를

받던 성인 바실리를 모시면서 바실리 성당으로 불리게 되었다. 외관은 첨탑을 중심으로 예배당부가 형성하는 4개의 다각탑 및 그 사이에서 있는 4개의 원탑 등 9개의 탑이 서 있는 독특한 건축물이다. 주위의 탑에는 저마다 다른 의장으로 된 양파모양의 큐폴라가 붙어 있고, 외면은 다채롭게 채색되어 있다. 비잔틴의 건축양식과 러시아의 전통적인 목조 건축 양식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붉은광장과 성바실리 대성당>

크레믈린궁과 붉은 광장을 보고 선조가 남겨준 문화유산을 잘 보존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모습에서 많은 감명을 받았고, 러시아는 문화유산을 통해 자신들의 우월한 문화를 자랑함과 동시에 많은 관광소득을 올리고 있었다.

우리 경남에서도 가야의 주요유적지와 우리나라 3대 누각중 2개소가 경남에 있다. 가야의 유적지와 밀양 영남루, 진주 축석루는 우리의 유서깊고 높은 문화수준을 보여주기에 충분한 곳이다. 또한 선비의 고장 산청과 함양의 문화유산,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공원인 지리산, 람사르 협약습지인 우포늪, 철새의 고향 주남저수지 등 모두 열거하기 어려울만큼의 많은 문화, 관광 자원이 있다. 이러한 곳의 발굴해내지 못한 이야기, 유적, 선조들의 과학적 수준, 아름다운 자연환경등을 밝혀내고 발전시켜 나간다면 경남의 높은 문화수준을 자랑하고 지역민에게 많은 관광소득을 올려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삼산, 전승기념역, 아르바트거리

1. 삼산열차

삼산은 러시아어로 ‘매’ 라는 뜻이다. 삼산열차는 모스크바-상트페테르부르크를 이어주는 고속열차로, 600km 구간을 직통으로 운행한다. 러시아의 열차 중에서 가장 빠른 것으로 현재는 고속철도 전용선로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최고 영업 속도 250km/h로 운행하고 있으나 향후 고속철도 전용선로가 완공되면 최고 영업 속도 350km/h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러시아 삼산열차에는 이코노미/일반석, 비즈니스석, 일등석까지 여러 좌석이 있고 열차를 탈 때에는 반드시 여권을 소지해야 한다. 삼산열차의 내부는 우리나라 KTX와 몹시 흡사한 편이지만 좌석이 넓고 폭신한 편이었고, 헤드레스트에 베개가 부착되어 있는 점이 특이했다.

또한 삼산열차 객실 앞쪽에는 짐 보관대와 외투걸이가 구비되어 있고, 식당칸에는 샌드위치, 토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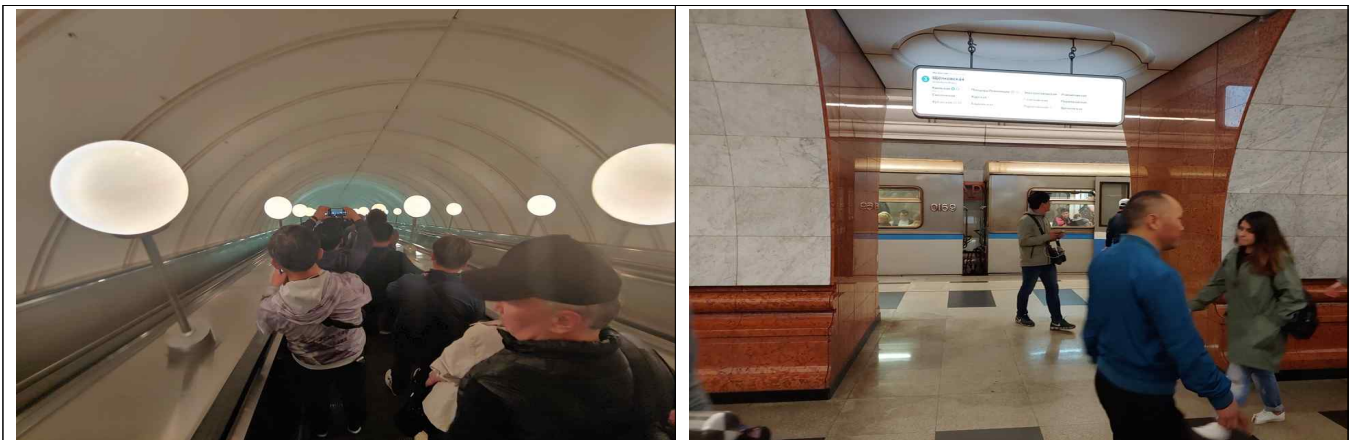
차, 커피 등 다양한 종류의 간식거리를 판매하고 있었다. 이용하는 동안 우리나라 KTX와는 다른 고속열차로 광활한 러시아를 느낄 수 있었고 전체적으로 체계적이고 쾌적했다.



<삽산열차와 좌석>

2. 전승기념역

모스크바 지하철은 평일 평균 이용객 약 9백만 명, 모스크바 교통의 50%를 차지하는 교통수단이다. 모스크바 지하철의 교통 분담률이 특히 높은 데에는 러시아의 웅장함과 기교를 엿볼 수 있는 예술적인 승강장이 한 몫 한다. 모스크바의 지하궁전이라고 불릴 만큼 아름다운 지하철은 14호선까지 있어 노선체계가 복잡하다. 그렇지만 노선마다 고유의 색깔이 있어 환승할 때 역사에 표기된 색깔과 노선번호를 따라 이동하면 된다. 모스크바 지하철은 1935년 5월 15일 처음으로 개통되어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앞서서 개발되었다. 지하철을 타기위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아주 깊숙한 곳까지 내려갔는데, 긴 터널을 따라 3분 이상 걸렸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모스크바 지하철은 독일군의 공습을 피하기 위한 대피소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독일군이 모스크바 근처까지 진격한 1941년 10월 15일에는 모스크바 지하철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거를 지시하는 한편, 차량은 대피시키기로 계획했다고 한다. 이로 인해 다음날 오전 모스크바 지하철은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운행하지 못했다. 하지만 당일 저녁에 독일군이 모스크바 근교에서 진격을 멈춤에 따라 폭파 명령은 취소되었고 지하철은 다시 운행을 시작했고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전승기념역>

3. 아르바트거리

아르바트거리는 모스크바를 대표하는 변화가답게 많은 여행객들이 반드시 한 번쯤 들르는 장소라고 한다. 스탈린 양식의 거대한 외무성 건물까지 약1km 남짓되는 보행자 전용거리인 아르바트 거리는 마치 우리나라의 대학로와 비슷한 느낌을 주는 아름다운 거리다. 현재 모스크바에서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붐비는 곳으로 거리 주변의 아름다운 건물들이 특징이다.

역사적으로 아르바트거리는 적어도 15세기부터 존재했으며, 모스크바와 연결되는 주요 무역루트 가운데에 있어 여러 상인들과 공예가들이 머무르던 장소라고 한다. 이렇게 번영하던 거리는 1812년 나폴레옹의 러시아 침공 때 불타버렸지만, 그 후 러시아의 고위 귀족 및 예술가, 학자들이 거주하는 고급스러운 거리로 탈바꿈했고 이는 소련 시대까지 이어져 공산 시대에도 고위 공산당원들이 주로 거주하던 지역이 되었다고 한다.

거리에는 예술가들이 그림을 들고 나와있었고, 거리의 중간중간에는 여러 예술극장들이 있었다. 또한 아르바트거리 곳곳에는 유명한 동상이 몇 개 있었는데, 러시아의 시인이자 작곡가, 가수인 블라트 오쿠자바와 러시아의 국민시인인 알렉산드르 푸쉬킨과 그의 아내 동상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아르바트거리의 명소로서 러시아의 국민가수이자 고려인이었던 빅토르 최의 추모벽이 있었는데 그는 1980년대에 소련 전역에 퍼져 유명세를 떨쳤고 지금도 러시아 대중음악에 커다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고 한다.



<아르바트거리에서 본 간이서점과 빅토르 최 추모벽>

□ 에르미타주 박물관, 피터대제 여름궁전 일대

1. 에르미타주 박물관

정식명칭은 국립 에르미타주 미술관으로 세계 3대 박물관(영국: 대영 박물관,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속한다. 바로크 스타일의 기품있는 궁전으로 제정 러시아 황제의 거처였던 겨울 궁전과 네 개의 건물이 통로로 연결되어 있다. 러시아 제국의 제8대 황제인 예카트리나 2세 작품 수집으로 현재에 이르게 된 에르미타주 미술관은 프랑스어로 ‘에르미타주’-은둔지, 인적이 없는 방-라고 즐겨 불렸으며 이것이 에르미타주 명칭의 유래이다. 현재 총 1,020여 개의 방에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

란젤로 등 당대의 명화를 포함하여 장신구, 조각상 등 세계의 고대 유물과 예술품 등 약 300만점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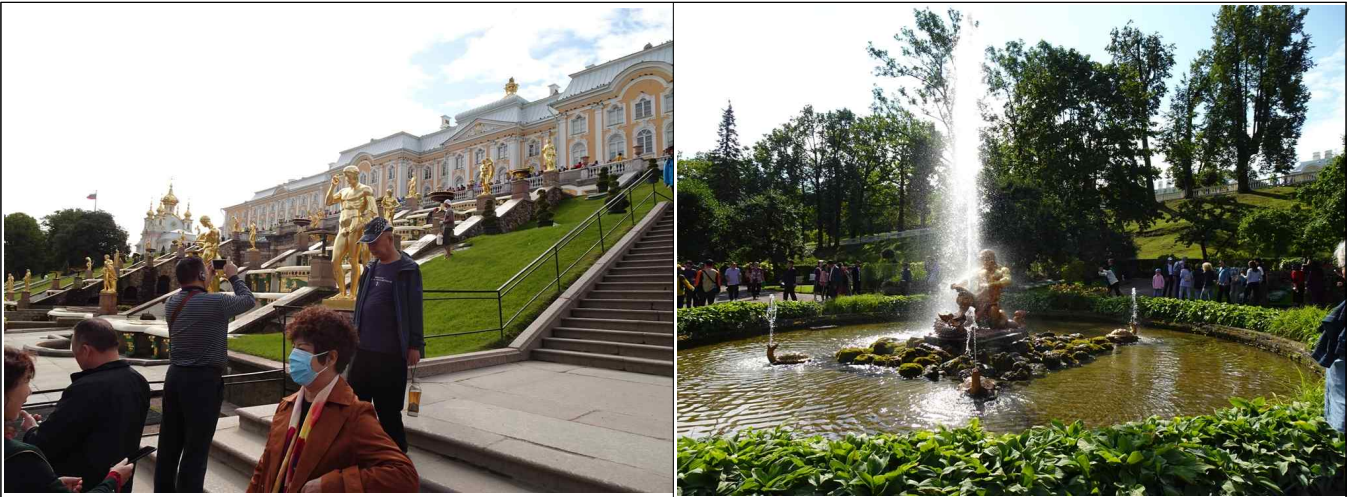


<박물관 내부>

러시아의 최대 자랑거리이자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인 에르미타주 박물관의 규모는 세계 3대 박물관이라는 명성만큼 대단했다. 총면적 4만 6천㎡에 달하는 박물관 내부는 미로를 연상케 할 만큼 화려하였으며 그곳에서 전시되고 있는 유럽 각지의 걸작과 유물품은 수도 셀 수 없을 만큼 방대하였다. 400개가 넘는 전시실에 약 300만점의 작품을 모두 감상하려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꼬박 한 달이 걸린다고 한다. 1941년 2차 대전 당시 독일군에 의해 상트페테르부르크가 900일간 봉쇄됐지만 이곳 시민들은 끝까지 저항하며 도시를 빠져나간 마지막 열차에 박물관의 전시품 후송에 혼신을 다해 동참한 유명한 일화가 있을 만큼 에르미타주는 러시아인들의 자부심이라고 느껴졌다.

2. 피터대제 여름궁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서쪽으로 약 30km 거리에 있는 페테르고프에 있는 러시아 제국 시대의 궁전, 페테르고프 궁전이라고도 한다. 에르미타주 박물관으로 쓰이는 겨울궁전에 대비해 여름에 지내는 궁전으로 궁전에서 바로 핀란드 만 바다가 시원하게 내려다 보이고 ‘분수의 궁전’으로 불릴 만큼 분수가 가득한 정원으로도 유명하다. 피터 대제가 스웨덴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기념으로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을 본따 1714년에 착공되어 9년 뒤 완공되었다고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150년이 지난 후에야 공사가 끝이 났다. 20여 개의 궁전과 140개의 화려한 분수가 구성되어 있으며 분수는 매일 오전 11시 정각부터 가동되며 여름에만 한정하여 운영된다.



<궁전 및 분수대 전경>

2차 대전 당시 독일군의 폭격과 약탈로 인하여 여름궁전이 많이 파괴 되고 훼손
 1945년부터 30년 동안 재정비를 하여 현재에 이룸. 전쟁 당시 대부분의 남자들이 전쟁에 참전하여
 여성들과 노약자가 공원 재정비에 참여하는 당시 사진들의 모습에 숙연해졌다. 또한 전후 경제적으
 로도 상황이 좋지 않았음에도 세계적인 문화유산에 대한 복원을 지체없이 추진하는 점에서 러시아
 인들의 문화와 예술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궁전 전경>

□ 넵스키 대로 일원, 카잔성당

1. 넵스키 대로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번화가로, 네바 강에 위치해 있다. 명칭은 '네바 강의 거리'란 뜻이다. 상트
 페테르부르크의 모든 길들은 넵스키 대로로 통한다는 말이 있을 만큼 해군성에서 알렉산드르 넵스
 키 수도원까지 4.5km로 뻗어 있는 이 거리에는 호텔, 레스토랑과 카페, 상점들, 음악당 등이 위치하
 고 있다. 원래는 습한 늪지대였던 이곳은 1710년에 처음으로 길이 뚫리게 되면서 상트페테르부르크

를 대표하는 문화, 상업의 중심지이자 가장 아름다운 거리 중 하나로 손꼽히게 되었다. 거리에는 19세기에 건축된 화려하면서도 아담한 건물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 더욱 운치가 있다. 경남도와 시군에서 거리 조성 시 향후 도시계획과 연계하여 건물 구성과 배치 등 관광 프로그램 개발에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넵스키 대로>

2. 카잔성당

로마의 산피에트로 대성당을 본뜬 네오클래식 양식의 건물이다. 스트로하노프 백작의 농노 출신 건축가 바로니킨(A.Varonikhin)에 의해 1801년부터 10년에 걸쳐 지어졌다. 넵스키 대로(Nevsky Prospekt) 쪽으로 넓혀진 반원형의 회랑에는 94개의 코린트식 기둥이 늘어서 있다. 건물 내부에는 19세기 초의 거장들이 그린 이콘(icon)이 있고, 특히 《카잔의 마리아 상(Ourlady of Kazan)》이 유명하다. 성당이 완성된 후 러시아는 나폴레옹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성당 안에는 프랑스군에게서 빼앗은 107개의 군기와 승리의 트로피 등이 걸려 있다.

카잔 성당은 예배를 보고 있어 신자들이 많이 찾고 또한 그로 인한 인근 상가들의 상권형성에 많은 도움이 주고 있어 관광객들이 주로 많이 찾은 여행지 이다. 경남도와 시군에서도 유명한 교회와 사찰을 연계한 관광지 프로그램 개발시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



<카잔성당의 외부모습>

□ 노보데비치 수도원과 깨끗한 도로를 만드는 살수차와 청소차

1. 노보데비치 수도원

바실리 3세가 스톨렌스크를 점령한 기념으로 1524년에 세운 수녀원으로 수도원의 역할 뿐 만 아니라 크렘린을 지키는 요새역할을 수행했다고 한다. 수도원을 방문했을 때 날씨가 무척 흐렸는데 고요하고 차분한 분위기에 차와 사람들이 많았던 모스크바 시내와는 색다른 느낌을 주는 곳이었다.

수도원 주변을 한 바퀴 도는 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곳곳에 오리나 비둘기 같은 새들이 많았고 수도원이라기 보다는 한국에서 볼 수 있는 공원에 가까웠다.

작곡가 차이코프스키가 유명한 ‘백조의 호수’ 를 이곳의 호수에 백조를 보고 작곡했다는 가이드의 설명에 아름다운 공원 분위기를 더욱 의미있게 만든다는 느낌을 받았다.

또한 이곳은 러시아의 유명인들이 묻혀있는 묘지로도 유명한데 니콜라이 고글리, 소설가 안톤체홉, 시인 블라디미르 아얍코프스키, 흐루시초프 등 이 이 수도원에 잠들어있다.

문화유적지나 관광지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곳이 많다. 당연히 화려한 곳에는 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다. 하지만 도시속의 고요함이 묻어있는 이 노보데비치 수도원은 만약 러시아에 다시 올 일이 있다면 꼭 한 번 다시 들르고 싶다.

항상 작년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해야 하고, 더욱 큰 사업을 벌여야 하고, 더많은 이윤을 남겨야 하는 것이 시정목표가 되고있는 요즘 이 수도원처럼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공간이 주는 의미를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향후 시정정책에 참고가 되었으면 한다.



<수도원 전경>

2. 살수차와 청소차

처음 모스크바에 도착했을 때 우리나라의 현대, 기아차가 도로에 너무나 많아서 여기가 한국도로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켰는데, 그럴 때 마다 지나가는 살수차로 인해 ‘여기가 다른 나라구나’ 하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다.

사실 우리지역에서 살수차를 보기는 쉽지가 않다. 먼지가 많은 계절에 가끔 보이긴 하는데 1년에도 손에 꼽을 정도일 것이다. 하지만 여기 러시아에서는 살수차를 정말 하루에 10대 이상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큰도로 뿐 만 아니라 작은도로, 심지어 인도에도 살수차가 물을 뿌리고 다녔는데 가이드의 설명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비가오든 오지 않든 살수차는 하루에 다니는 대수가 정해져있어서 행정적으로 하는 것을 막는 것이 더 비효율적이라서 도로에 계속 살수차가 다닌다고 했다. 흐린날이 많은 모스크바에 살수차가 물을 뿌리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엔 비효율적인 것으로 보였지만 미세먼지 문제가 대두되는 우리입장에서 보면 나름 괜찮은 시책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그리고 감탄했던 부분은 거리가 담배꽂초 하나 없이 깨끗했다는 것이다. 환경미화원도 안보이는데 이렇게 도시의 거리가 깨끗한 것은 러시아 사람들의 도덕성도 한 몫 하겠지만 곳곳마다 설치된 쓰레기통과 청소차의 영향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러시아의 살수차와 청소차>

□ KOTRA 무역관 방문

1. 방문개요

- 가. 일시 : 2019. 8. 20(화) 09시 ~ 11시
- 나. 장소 : 코트라 무역관, 호텔 세미나장
- 다. 참석인원 : 경남시군의장협의회 36명
- 라. 주요내용
 - 1) 한눈에 보는 러시아
 - 2) 러시아 이해의 키워드
 - 3) 러시아 경제 주요 이슈
 - 4) 러시아 교역 현황(2018년)
 - 5) 러시아와 상트페테르부르크
 - 6) 러시아와 한국과의 관계
 - 7) KOTRA 중소기업 지원 소개
- 마. 설명회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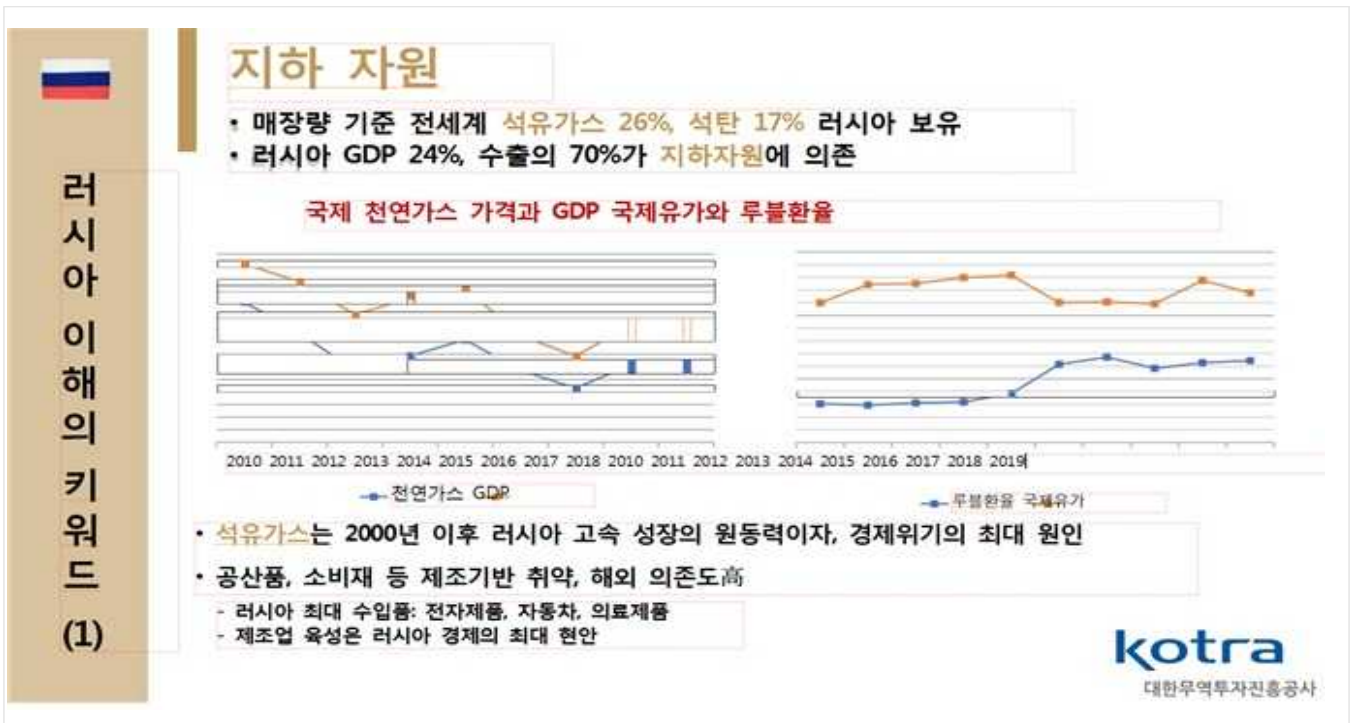


라. 주요내용 - (자료제공 코트라 무역관)

1) 한눈에 보는 러시아



2) 러시아 이해의 키워드



2) 러시아 이해의 키워드

러시아 이해의 키워드 (2)

고난을 극복한 대강국

- 2차대전 승전 과정에서 러시아인 2,340만명 사망
- 급격한 소련체제 붕괴, 2차례의 경제위기 극복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 러시아 경제 주요이슈

러시아 경제 주요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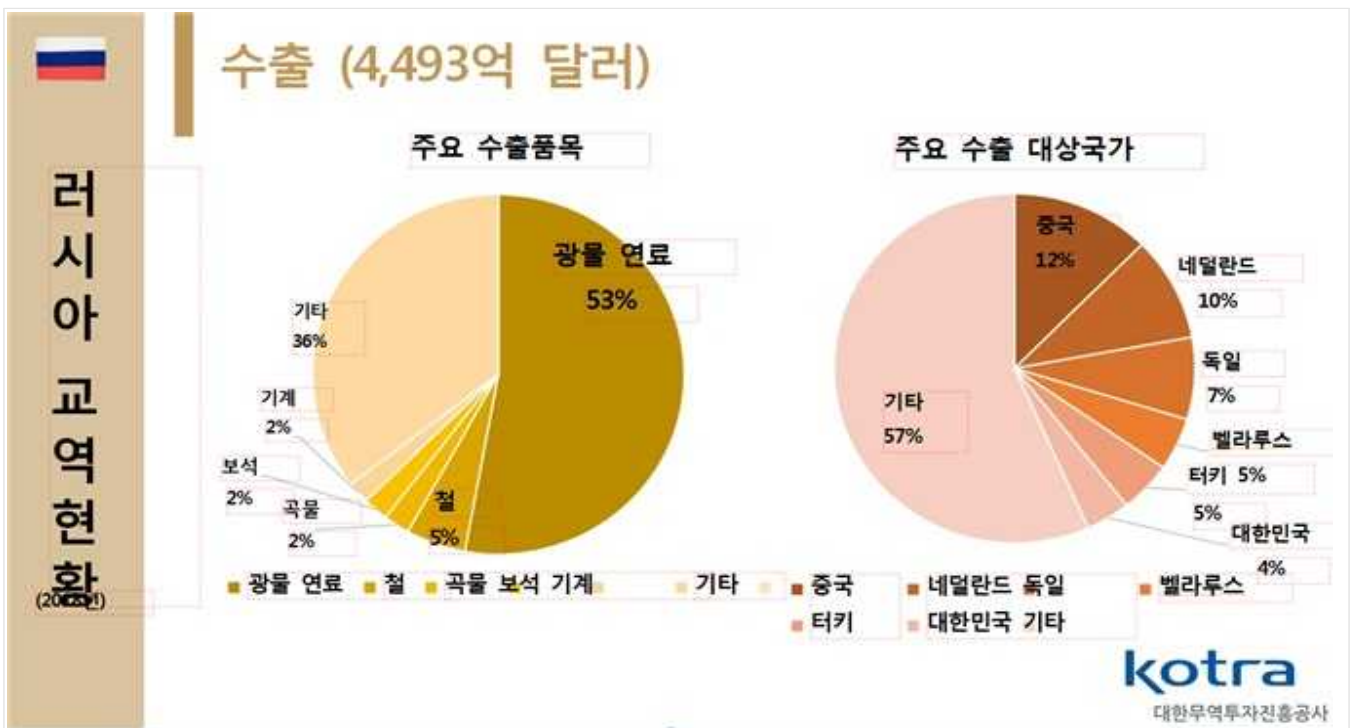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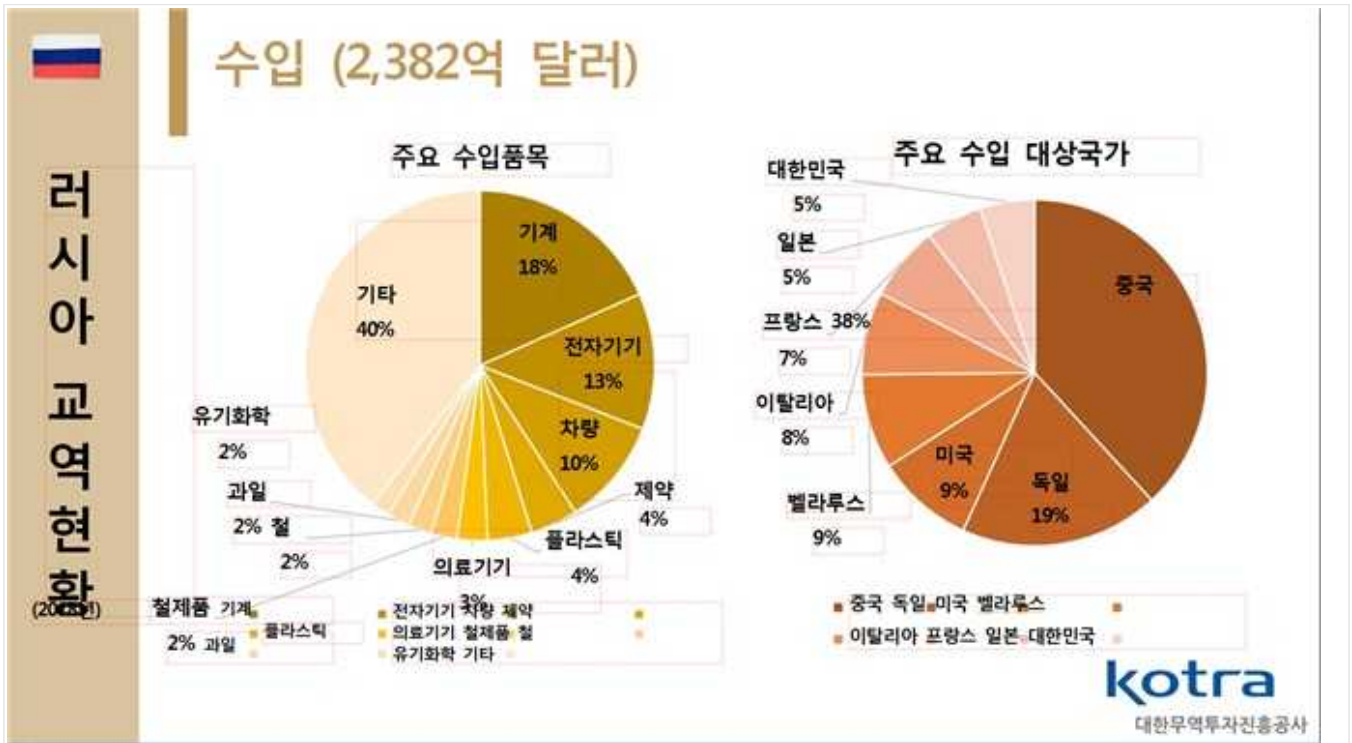
러시아 자동차 판매량 증가율 (연대비, %)

- 국제유가 하락, 서방-러시아 간 경제제재 조치로 경기 침체 지속
- 산업생산 2.9%↑, 소매 2.6%↑ ('18)
- 물가상승 4.3%↑ ('18)

- 러시아 자국 제조업 육성 정책 강화
- 수입대체 산업 육성 프로그램 시행
- 외국 기업 공공조달 참여 제한 조치
- * 의료, 기계, 경공업제품 분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4) 러시아 교역현황(2018년)



5) 러시아와 상트페테르부르크

러
시
아
와
상
트
페
테
르
부


역사

- 상트 페테르부르크
Saint Petersburg (1703)
- 페트로그라드
Petrograd (1914)
- 레닌그라드
Leningrad (1924)
- 상트페테르부르크
St. Petersburg (1991)



kotra

러
시
아
와
상
트
페
테
르
부
르



St. Petersburg

혁명과 영웅의 도시
유럽의 정취를 품은 도시
문학과 예술의 도시

1990년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100여개의 섬 위에 건설된 도시
네바강을 잇는 583개의 운하
178개의 박물관, 80개의 극장
북방의 베네치아
여름 백야축제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6) 러시아와 한국과의 관계

러시아와 한국과의 관계

러시아 - 대한민국



- 1897 년 민영환 주러 초대 특명전권공사 부임
- 1901 년 이범진 주러 상주공사 임명
- 2006년 대한민국 총영사관 개설
- 2011년 9월 KOTRA 개설
- 교민 : 약 9백명
- 고려인 동포 : 1만 8천명
- 현지진출 기업 : 약 30여개 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러시아와 한국과의 관계

◎ 공장 건설 입지

위치선경

자동차산업 인프라 및 물류 운송 유리
주정부 산업단지 신규 지정 등 적극적인 투자 유치





◎ 상트페테르부르크 경쟁사 현황

메이커	생산능력 (년)	'15 생산	생산 차종
도요타 (2007)	10만대	32,882	칼리
지엠 (2006)	9.6만대	9,415	크루즈, 아스트라 *15.7% 성장률
닛산 (2009)	10만대	33,600	티아나, X-트레이일 무라노, 알메라
보드 (2002)	12.5만대	14,968	포커스, 몬데오

6) 러시아와 한국과의 관계

러시아와 한국과의 관계





◎ 공장 개요



부지 60만평

- 1차 18만평
- 건물 3.9만평
- 공장 2.6만평

현대 폴라리스

기아 리오/X-line

현대 크레타

생산능력 : 22만대/년

- 3조 3교대
- 시간당 생산대수 : 45
- 일 근무시간 : 21.58

종원 : 2,260명

- 사무직 : 346명
- 생산직 : 1,914명

- 러시아 진출 해외 메이커 최초 20만대 규모로 프레스를 포함한 전 생산공정을 갖춘 전략형 공장
- 외국 투자기업 유치의 성공사례이자 롤 모델로 평가

러시아와 한국과의 관계





◎ 협력사와 동반 성장



HMMR 지역 내 2개사 (모비스, 현대제철)

협력사 부품단지 내 7개사

복합부 지역 내 2개사 (유라, 한일투브)

6) 러시아와 한국과의 관계

러시아와 한국과의 관계

상트페테르부르크 내 현지 업체

KOREAN AIR

CJ 제일제당

LOTTE
HOTELS & RESORTS

LG Electronics

SAMSUNG 삼성물산

HYUNDAI
MATERIALS

우리은행

HMM
HYUNDAI MERCHANT MARINE CO., LTD.

HYUNDAI
GLOVIS

pantos LOGISTICS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러시아와 한국과의 관계

KOTRA 상트페테르부르크 무역관 2019 수출 확대 전략 3대 분야

조선협력

러시아 조선육성정책 활용
중대형 기자재기업 전시회



소비재진출

글로벌유통망진출사업
한류, K-beauty(159백만불),
K-food



중견기업

보일러(39백만불), 임플란트(45백만불) 등
캐시카우 권역별 진출사업



VI

방문결과 총평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러시아 국외출장은 시작부터 준비가 쉽지 않았다. 공식방문 기관이었던 Mtsr Deti 아동재활센터측에서 여행 직전에 갑작스럽게 방문을 불허하는 일이 발생해서 아동복지사례를 살펴보려는 계획은 아쉽게도 무산되었다. 어쩔 수 없이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코트라 무역관에서 러시아의 현재 상황과 우리나라 기업의 진출 및 향후 전망 등을 브리핑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는데

러시아의 아동재활센터를 가 볼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 아쉽긴 했지만, 브리핑을 통해 러시아의 경제상황과 우리나라와의 관계를 간략하게나마 알 수 있는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 거리에서 우리나라의 현대, 기아 자동차를 정말 흔하게 볼 수 있었고, BTS를 위시한 KPOP의 인기도 몸소 체험했다.

그동안 러시아 하면 구소련의 공산주의가 아직까지 지배하는 나라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이번 출장을 통해 그런 고정관념을 불식시킬 수 있었다. 거리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커다란 전광판 광고들과 맥도날드, 스타벅스 등의 매장들은 우리의 그것과 차이가 없었다.

특히 수많은 아름다운 문화유산과 그에 걸맞은 러시아 역사의 처절함과 단단함을 몸소 체험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하면 아찔한 일도 있었는데 삼산열차를 탈 때 승차권이 타인명으로 발권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취소하고 재발권을 요구했으나, 결국 취소할 수 없어 새로 발권할 수밖에 없었다. 빈자리가 없었다면 2명은 다음 열차를 타야해서 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었다. 우리나라라면 그냥 넘어갈 일도 그냥 넘어가지 않는 원칙을 지키는 러시아 사람들의 고집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유럽의 어느나라나 주요관광지는 문화유산일 정도로 잘 보존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점은 우리도 배울점이 많았다. 우리나라 건물의 경우 하자보수 때문에 외벽에 칠을 한 흔적이 많은데 반해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건물에는 그러한 흔적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또한 오래된 건물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보존상태가 깨끗했다.

그리고 건물 하나하나에 숨겨진 역사나 스토리 등은 관광객을 끌어 모을 수 있는 흥미로운 이야기로 가득했는데 우리 경남에도 이러한 스토리를 다 모아서 도서나 영상매체 제작 등으로 도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면 매번 가는 관광지라도 좀더 의미있는 여행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도내에 주요 관광지나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문화재를 새롭게 발굴하는 것도 좋지만 아끼고 보존하는 것이 그 시작이라는 것을 배웠던 국외출장이었던 것 같다. 아무쪼록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관광지 뿐 만 아니라 우리가 생활하는 마을부터 보존하는 것이 경남 문화발전의 기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